

한반도가 전해줄 평화의 메시지

전문가 칼럼

김민웅
교육대학원 교수



21세기 동아시아가 요동치고 있다. 평화를 향한 치열한 도전이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3대 의제를 확정했다. 첫째, 한반도 비핵화, 둘째, 획기적인 군사긴장완화를 포함한 항구적 평화정착, 셋째, 새롭고 담대한 남북관계의 진전. 이 모두가 다 성공한다면 우리는 엄청난 시대적 변화를 온 몸으로 체험하게 될 것이다. 이는 우리 삶의 여건이 훨씬 여유로워지고 정신적, 사상적 자유의 폭이 예상할 수 없이 확대되며 미래의 지평이 사뭇 달라진다는 것을 뜻한다.

돌아보면, 1894년 청일 전쟁은 동아시아를 전쟁의 시대로 돌입하게 한 시작이었다. 이보다 앞선 1868년 명치유신을 통해 근대국가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자부한 일본은 조선과 중국에 대한 지배권 강화를 위한 폭력체제를 가동한다. “제국 일본”의 등장이었다.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고 만주를 포함한 중국 전도에 걸친 전쟁으로 동아시아는 비통한 세월을 겪어야 했다. 그러나 1945년 일본의 항복이 곧 평화를 뜻한 것은 아니었다.

미국과 일본의 격전이 중심이었던 아시아-태평양 전쟁의 종식은 즉각 냉전체제 수립으로 이어졌고, 한반도는 분단과 전쟁 그리고 다시 분단의 역사로 이어졌다. 남과 북은 전쟁체제 강화에 몰두하면서 일상적인 전쟁 공포에 시달려왔다. 북한의 핵무장은 그 정점에 존재하는 사건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대치전선, 여기에 합류한 일본의 움직임은 평화의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제약했고, 이로써 한반도는 자신의 미래적 가능성을 소진 당해왔다.

그렇다고 돌고구를 마련하는 노력이 포기되었던 것은 아니다. 1948년 정부수립 이후 70년 동안, 남과 북의 대화노력은 여러 국면에서 시도되었고 그 실제적 성과도 일정하게 쌓여



(사진=중앙DB)

왔다. 하지만 지난 10년 이명박-박근혜 집권 시기의 한반도는 평화적 대화의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었다. 다시금 했고 군사적 충돌과 승패의 담론만이 주도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남북 평화정책은 이런 와중에 실종되어버렸고 역사는 뒤로 후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촛불시민혁명과 문재인 정부

2016년과 2017년에 걸친 촛불시민혁명은 이런 상황을 일거에 바꾸어낸 역사적 사태였다. 그로써 등장한 문재인 정부는 민주주의의 회복과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해결 그리고 평화체제의 항구적 수립을 이루라는 시대적 요구에 대한 응답이었다.

지난 해인 2017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은 “항구적 평화체제의 수립”이 그 핵심이었다. 다음 해인 “평화협정체결”에 대한 의지표명이었다. 2018년 평창올림픽에서 교감을 이루어낸 남과 북의 정상회담 발표는 바로 이 경로로 가는 여정의 요약이다.

수많은 남북 회담이 있어왔지만, 평

화협정체결은 남쪽 정부가 선도적으로 제기하기 어려운 사안이었다. 평화협정 체결 시 외국군대의 철수는 정전협정 당시 논의되어 전제된 것이었기 때문이다. 외국군대철수는 미군철수를 뜻하는 것이 명백했고, 그렇게 되면 평화협정체결은 북에 의한 남침을 가져올 초청장이라는 반격이 이어질 것은 분명했다. 결국 미국의 군사적 위상의 문제가 관건이었다.

그런데 최근 수년 동안 북한은 미군철수를 주장하지 않았고, 김대중 정부 당시 주한미군은 영구적 평화체제가 이루어지기까지 일종의 평화유지군으로서의 위상변화를 논의했던 바가 있었던 점은 평화협정체결의 의지를 가지게 되는 조건 가운데 하나로 작동했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이번엔 북한이 미국과의 평화적 관계가 이루어질 경우 비핵화는 선대의 유훈이라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상황 변화의 축이 만들어진 셈이다.

한반도, 세계사적 임무

이제 한반도는 세계사적 역할을 하는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 남과 북이 전쟁체제를 극복하는 의미에서 머무

르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세계 최강의 미국과 중국 사이의 평화적 완충대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는 남과 북의 민족적 적대구조를 해결하는 일차적 의미만이 아니라 인류전체가 열망하는 평화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만들어내는 위대한 현상이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는 세계시민적 지향점과 일치한다. 폭력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어내는 일, 집단적 적대감을 우호적 관계로 전환시키는 작업, 인간의 존엄성을 구조적으로 보장하는 노력, 인간의 의식 내면에서부터 평화의 생명력을 지닌 우주적 조화로움이 일상이 되게 하는 시도 등 한반도 평화체제의 수립과정에서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가치와 비전은 풍요하다.

그렇지 않아도 2018년 우리학교 평화의 날 행사는 “한반도 평화와 인류의 미래”라는 주제의식을 가지고 준비된다. “경희의 미래, 인류의 미래”라는 우리의 확신이 한반도에서 새로운 동아시아가 탄생하는 작업에 기여할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쁘겠는가! 인류적 가치를 향한 경희인들의 뜨거운 마음을 기대해본다.

참여마당

유현기
(사학 2013)



수업 없는 학생들 ‘익숙한 것의 상실’

봄이지만 꽃이 필 것 같지 않다. 여전히 춥기도 하지만, 스물다섯에게 봄은 그런 느낌이다. 하루가 달리 커가던 기억과 달리 몸은 더 크거나 나은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않는다. 열심히 운동을 하고 몸에 좋은 것을 챙기며 더 이상 ‘짐물하지’ 않도록 간신히 버티는 기분이다.

여자 동기들은 졸업하고 꿈을 찾거나 꿈을 잃었다. 남자 동기들은 말수가 적어졌다. 이제는 알고 있다. 세상은 러닝머신 같이 저절로 움직인다. 그 위에서 걷기라도 않으면 금세 뒤로 밀려난다. 어쩌면 땅에 코를 박고 넘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분명히 그럴 것이다. 아마 그래서 우리는 휴학을 두려워한다. 대학에 익숙해지며 생체시계는 학기 단위로, 혹은 수업시간인 한 시간 십오 분을 단위로 시간을 인식하기 시작했고, 술에 취해 수업에 빠질지언정 정운관 앞을 걸어 다니고 있다는 것에 안심한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아주 ‘일반적으로’ 섞여 있다는 느낌은 지겹긴 하지만 때론 위안이 된다.

작년 2학기 첫 휴학을 감행했다. 지난 대학 생활은 긴 소설보다는 한 편의 시로 압축되는 것 같다. 몇 번의 사랑을 했고 이별을 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고양이를 좋아하게 되었다. ‘젊은 시절은 다시 오지 않는다’고 어느 송나라 시인이 말했건만, 나의 대학 생활은 ‘젊음’이라는 단어가 벽찰 정도로 빠르게 지나갔다. 인간과 비인간, 꿈과 현실, 그런 모순된 것들 사이를 정처 없이 헤집고 다니며 절름거리다. 쉬고 싶었다. 다른 이들은 휴학신청 버튼을 누르면서 그 날들을 어떻게 떠올렸을까.

우리를 구성했던 덩어리를 되돌아 볼 때

휴학신청서를 제출하는 순간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이젠 뭘 하지?’였다. ‘일반적’이라는 건 늘 그런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내가 더 이상 ‘일반적’이지 않은 순간 길을 잃는다.

최근 무라카미 하루키의 ‘여자 없는 남자들’이란 책을 읽었다. 주인공, 즉 여자 없는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비어있고 고독하다. 본인들은 알아채지 못하지만 상처 받았고, 뭔가 잘못되어 있다.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은 여자 없는 남자들이 된다. 그날은 아주 작은 예고나 힌트도 주지 않은 채, 예감도 징조도 없이, 노크도 헛기침도 생각하고 느닷없이 당신이 찾아온다. 모퉁이 하나를 돌면 자신이 이미 그곳에 있음을 당신은 안다.”

휴학을 하면 대학생은 ‘수업 없는 학생들’이 된다. 직업업에는 학생이라고 쓰지만 배움을 중지한 모순된 낱말. 하지만 ‘수업 없는 학생들’에게 중요한 것은 ‘익숙한 것의 상실’이다. 우리는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추운 도서관 열람실을 잃는다. 아이스커피와 주점을 잃는다. 터치패이를 잃는다. 또 교양수업과 긴박한 눈 흘김을 잃는다. 학생식당에 줄을 서던 용기도 잃고 만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인생과는 영 상관 없는 사람들을 따라서 우리는 대학에 들어왔다. 우리는 청춘으로, 학생으로, 때로는 어른으로 불렸다. 그 과정에서 상처받았고 뭔가 잘못되었다. 이제 수업 없는 학생들이 되어, 우리를 구성했던, 아니 구성했다고 생각했던 덩어리를 때려놓고 가만히 지켜볼 시간이다.

오윤자의 마음코칭 - ②

이것들이 이별이야, 날 사랑하기로 결심했어



오윤자 교수
(아동가족학)

“선생님, 저는 자존감이 없고 감정기복이 심해요. 자존감이 너무 낮아서 문제인 것 같아요. 친구들 얘기에도 예민해지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금방 우울해지고, 확 떨어졌다가 또 금방 괜찮아지고 하는 감정기복이 너무 심해요. 남들이랑 비교를 안 하면 될텐데 자주 남하고 비교만 되고 이게 다 제가 자존감이 너무 낮아서 그런 것 아닌가 싶어요. 자존감이 높았던 예전엔 이런 고민이 없었는데.”

고마운 학생이다. 현재의 상황에 대한 불만은 있지만 그렇기에 자신에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깊이 생각하기 전에 입맛에 맞는 주변의 속삭임들만 듣고 눈을 돌릴 수도 있을 텐데,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고자 가중되는 어려움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애써 자신을 존중하며 찾고 또 찾아가는 기특한 모습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자신을 존중하며 애쓰는 자신에 대한 조건 없는 사랑을 하고 싶은 감정, 다시 말해서 자존감(self-esteem)이다. 이는 ‘자신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가’로 이해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존감은 자기 효능감(self-efficacy), 자기 조절감(self-regulation), 자기 안전감(self-security)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이를 다시 풀어보

면 자존감은 곧 유용한 정도, 마음대로 하고 싶은 정도, 편안한 정도에 관하여 자신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를 표현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실상 자존감에는 사랑이 깊이 관여돼 있기도 하다. 사랑은 그냥 야릇한 감정을 가리키는 추상명사로 단순하게 알려져 있다. 허나 사랑은 쉽지 않다.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행동이 필요한 ‘동사’다. 사랑이 동사가 될 때에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 예를 들어 ‘사랑하고 있다’, ‘사랑했었다’, ‘사랑할 것이다’ 등.

사랑 역시 6가지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에로스(Eros)적인 사랑은 성욕을 강조한 낭만적·열정적 사랑이다. 루더스(Ludus)적 사랑은 놀이 또는 게임의 의미로 심도 있는 현신이나 관여 없이 마치 게임을 하듯이 하는 사랑이다. 스토게이(Storge)적 사랑은 우정과 같이 함께 성장하는 것에 기초한 사랑이요, 프라그마(Pragma)적 사랑은 말 그대로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경향을 가진다. 매니아(Mania)적 사랑은 상대에 대한 질투심·독점욕·강렬한 의존감 등의 특성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아가페(Agape)적 사랑은 강하고 헌신된 이타와 보호관계를 이루는 사랑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다.

자존감과 사랑에 대한 기본적 지식을 가

지고 이 학생의 사례로 돌아가 보자. 그가 호소하고 있는 대로 자존감이 없거나 낮아서 문제인 것 보다는 그런 자존감을 가진 자신을 오랜 동안 방치하고 있는 상태가 더 주목해야 할 지점이다. 강의를 듣고, 학과 동료를 만나고, 동아리 선배를 만나고, 늦게까지 술자리를 가지고, 잠자리에 들 때쯤 낮 동안의 장면들이 스쳐간다. 동시에 뒤늦게 몇몇 생각과 후회도 같이 머릿속을 맴돈다. 과제 준비해야 했는데, 굳이 긴 시간 수다 떨지 않았어도 됐는데, 용돈도 조금 밖에 없는데, 안 된다고 할 걸, 너무 야박하게 굴었나, 참지말걸 등. 이 때 스쳐가는 생각은 주로 후회와 자신을 나무라는 내용이다. 그렇게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 채로 잠이 든다. 다음날 아침에 다시 일어나서 비슷한 하루를 보내고 잠자리에 들면서 헛바퀴 돌 듯 비난을 자신에게 쏟아 붓고 원망한다.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간다.

나를 사랑하기, 자존감 높이기

글피에는 다르게 잠들어 보자. 낮 동안의 일들이 생각날 때에 자신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내보자. 용기 내어 자신이 한 것에 주도권을 가지며 “내가 했어, 그랬구나” 소리 내

어 말 걸어 보자. 자신 안에 사랑의 에너지 충전하기. 진정으로 사랑해라고 말하기. 그리고 들려오는 자신만의 메시지 듣기. 오글 거려도 해 보자. 그글로부터는 누명 쓴 사랑이 벗겨질 것이다. “인생에 주어진 의무는 다른 아무 것도 없네. 그저 행복 하라는 한 가지 의무뿐.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세상에 왔지”라는 헤르만헤세의 말에 공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다만 두어 가지 정확히 짚을 게 있다. 정신분석학 대가인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은유에 등장하는 신화 속 인물 나르시스(Narcissus, 호수에 비친 자기 모습에 반하여 물에 빠진 청년)에서 출발한 나르시즘, 즉 모든 것들이 자기로부터 기인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자신이 전지전능하다고 생각하는 환상은 엄중히 경계해야 한다. 한 가지 더, 자만심은 자존감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런저런 걱정과 과감히 이별하고 자신에게 초점을 맞춘 채 있는 그대로, 조건 없이 자신을 사랑하기로 결심하자. 그리하면 하루가 다르게 자신만의 감정기복이나 남들과 비교하는 횡수가 줄어들 것이다. 곧 예전에 높았던 자존감을 회복하고 스스로에게 “사랑이지 말입니다”를 외칠 수 있는 ‘자존감의 후예’로 등극할 것이다.